전남도의회-도교육청 '일촉즉발'

교육위원회, 본청 감사 일수 2일에서 3일로 연장

소통부족vs발목잡기 9월 임시회 앙금 재현될 듯

5일부터 시작되는 전남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남도교육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9월 하순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노출된 양측의 '소통 부족'과 '발목잡기'로 표현됐된 앙금이 이번 회기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

전남도의회는 다음달 17일까지 43일간 일정의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전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번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중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예년의 2일에서 3일로 늘려 잡았다.

평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청이 2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왔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늘려 잡은 만큼 교육위원들은 장석웅 교육감을 상대로 각종 시책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감사를 앞두고 교육위원들이 도교육청 본청에 요구한 공통자료만 70여 건에 달한다.

자료제출 목록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용역발주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및 실적,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다양하다.

앞서 지난 9월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승희 교육위원장이 'CJ창의학교 전남사업' 과정에서의 교육청 소통부족에 대해 지적하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감정적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우승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참여위원회 위원들의 타 위원회 중복 참여 여부와 교육장 공모제 등에서의 참여위원회 역할 등 도교육청 전반에 대해 집중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이 국감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다"며 "본청에 대한 감사일수를 늘린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허성은 기자

조직비하 발언 해경 수사과장 견책 처분

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의반으로 A해양경찰서 소속 B(50)수사과장을 견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해경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B과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B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근거로 한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육상 경찰 출신인 B과장은 2012년 해경에 특채로 선발된 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해경은 육상 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면서 "(내가)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기본도 안돼 있다"며 해경 조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부하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줄 모르는 직원은 형편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의혹도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업무를 잘하려다 벌어진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D-10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태풍 '미탁'에 많은 비… 역대 10월 최다 강수량 169㎜

올해 10월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10월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평균 강수량은 169.0㎜로 지난해 10월의 164.2㎜를 넘어 1973년 이후 역대 10월 최다 강수량이었다.

특히 10월 강수량의 86%가 태풍 '미탁'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말에 발생한 미탁의 영향으로 10월1~3일은 전남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 초까지 세력을 유지하면서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을 통과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다"면서 "10월4일부터는 찬 공기가 때때로 유입되면서 강수가 잦았지만 강수량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미탁이 물러간 이후에도 19호 하기비스, 20호 너구리, 21호 부알로이, 22호 마트모 등 10월에만 4개의 태풍이 더 발생했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이 크게 수축하면서 3개의 태풍은 일본으로, 1개의 태풍은 베트남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

10월 평균기온은 15.8도(+1.5도 편차)로 역대 4번째로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21.4도)은 14위, 평균 최저기온(11.1도)는 4위였고, 일교차는 10.4도(-1.5도 편차)로 적은 순으로 5번째에 해당했다.

기상청은 "10월에는 대륙고기압이 때때로 확장해 찬 공기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10월 초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과 중순 이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잦아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폐지 줍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4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한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에서 A씨(36)가 몰던 쏘나타가 B씨(67)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폐지 등을 토대로 B씨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폐지를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서 22명 탄 낚싯배 좌초 전원 구조

4일 오전 7시23분쯤 여수시 대경도 서쪽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A호(승선원 22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여수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사고 해역에 출동한 해경은 A호의 배 밑바닥이 해안가의 암석에 얹힌 상태에서 왼쪽으로 40도 정도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다.

해경구조대원들은 A호에 승선해 낚시객의 안전을 확인한 후 일부 좌초의 충격으로 목과 무릎 등 타박상을 호소하는 낚시객 등 승객 전원을 구조정으로 옮겨 태웠다.

해경 조사에서 선박 우현 선미부분에 약 40㎝x1m 크기의 파공이 발견됐지만 침수는 없었다.

해경은 A호 연료밸브 차단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A호 선장과 낚시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호는 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끝내고 입항 중 대경도 서쪽 해상에 좌초했다.

현직 경찰이 사설경마장 단속정보 제공

경기 오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지난달 경기 오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오정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A경위와 B경위는 현재 대기발령된 상태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와 B경위는 사설 경마장 사이트 운영자 C씨에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경위와 C씨가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것을 포착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이들의 컴퓨터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정경찰서는 이들이 수사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들의 혐의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이다.

BTS 정국, 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본명 전정국·22)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 2일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정국과 택시 운전사는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국이 입건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뉴스1